

■ 선진농업 현장 ③ 현대농원대표 김덕만 ■

토마토(유리온실) 천적이용 친환경농산물 생산

포천시 동교동에서 870평, 900평 규모의 유리온실에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현대농장 김덕만(39,사진)대표는 이미 출하한 1기작에 이어 2기작 토마토를 온실에 정식, 관리하고 있다.



포천시 동교동에 위치한 현대농장 유리온실에 자라고 있는 토마토(원안은 김덕만 대표).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재배는 겨울에는 70일, 여름에는 55일이 소요된다. 토마토 재배는 포트에 파종하여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유리온실에 옮겨 심는다(정식). 포트에 파종은 다른 업소에 위탁 관리한다. 정식후 2개월이면 토마토를 수확하게 된다. 정식후 2개월동안 쓰러지지 않도록 끈으로 잡아주는 것과 결순을 제거하여 토마토의 알을 키워 상품으로서 가치를 높인다.

김 대표가 유리온실에서 재배한 토마토의 장점은 무농약 재배다. 농약을 주지 않고 천적을 이용해 해충을 박멸하는 것이다. 이 천적구입지원은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다. 2005년도에 45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처럼 무농약으로 재배한 토마토는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말하자면 더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현대농장에서는 벌을 투입해 수정을 돕는다. 토마토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 300평에 50마리 정도를 투입한다. 이 벌은 네덜란드에서 수입해온 나투벌이며 1박스(12만원)마다 여왕벌 1마리가 있으며 3~4개월 살다가 죽게 된다. 농업도 과학이라는 생각으로

김 대표는 유리온실에서 토마토 생산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최근 언론에서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보도로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토마토는 신선한 것은 날로 먹고 샐러드·샌드위치 등으로 쓰며, 주스·튀김·케첩과 각종 통조림 등 가공용에도 많이 쓴다. 열매는 90% 정도가 수분이며 카로틴과 비타민C가 많이 들어 있다.

토마토는 16세기 무렵 이탈리아에 전파되었으며 흔히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한국에 들어온 것은, 《지봉유설(芝峰遺說)》에 '남만시(南蠻柿)'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614년보다 앞선 것으로 추측한다.

김덕만 현대농장 대표는 "토마토를 재배하여 수익을 창출하지만 농산물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게 없다"며 "우리나라 농업정책이 농가들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추진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⑦

일번지 암소갈비

차별화된 신개념 음식점



대표 김애화

현재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넓은 공간과 시설을 이용해 현재의 건물 2층에 풍천민물장어 민물매운탕코너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깔끔한 분위기가 매우 인상적이다. 분위기와 걸맞게 주문 후 차려져 나오는 밑반찬은 다양하면서도 신선한 것이 찾는 고객들의 입맛을 돋구고 있다. 일반 고객들이 주로 선호하고 있는 잡고기 매운탕은 소고기, 참깨, 빠가사리, 잡고기 등이 풍부하면서도 톡톡이 날 정도로 매콤한 맛이 매운탕의 진미를 느끼게 하고 있다. 여기에 신선한 야채 등 양질의 부재료가 기본에 깊은 맛을 선사하고 있어 고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받고 있는 메뉴다.

마지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입맛과 식욕이 떨어질때 동시에 자칫하면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시기다.

이날 매일 수 록 독특한 건강식으로 활기를 찾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들어 포천 이동갈비의 메카 일번지 암소갈비(포천시 소흘읍 이동리 149-4 대표: 김애화)가 새로운 메뉴 출시로 고객들에게 부진한 입장이자.

일번지 암소이동갈비는 16년 동안 위 소재에

이밖에도 소고기회와 매운탕은 미식가들이 별미로 선호하고 있으며 담백한 국물과 감칠맛 나는 고기맛이 그만이다. 또한 계절별 특색 있는 맛을 선호하는 고객들이 즐겨찾는 참깨탕과 빠가사리탕 등도 고객의 구미를 당기게 하는데 손님이 전혀 없다. 주메뉴인 풍천민물장어와 자연산 장어는 최상급 장어만을 산지에서 직접 받아와 사용하고 매콤 담백한 소스와 만나 천하일미가 탄생된다. 매콤 담백한 소스는 김 대표만의 노하우, 다년 간 음식점을 운영해온 김 대표의 독특한 손맛과 정성이 바로 이 장어요리에서 묻어 나온다. 풍천장어와 소스가 함께하면 천하의 별

내수면 어자원 증식 위해 수산종묘 방류

대농갱이, 동자개, 메기 등 한탄강 근흥교 인근에서



지난달 28일 관인면 시정리에 위치한 한탄강 근흥교 부근에서 포천시 관계자와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종묘 방류행사'를 마련했다.

포천시는 지난달 28일 관인면 시정리에 위치한 한탄강 근흥교 부근에서 박윤국 포천시장과 홍성훈 시 의회의장, 포천시 어우회 및 환경

단체 회원, 그리고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종묘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내수면 어자원 증식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대농갱이, 동자개, 메기 등을 한탄강에 방류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토종어족 자원 보전과 증대를 위해 정착성, 회귀성 수산종묘 방류사업을 꾸준히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올해 한탄강과 산정호수, 영광천 등에 뱀장어, 참깨, 소고기, 동자개, 대농갱이, 메기 등 모두 1백여만 마리의 수산종묘를 방류한다고 밝혔다. 또 방생행사를 벌이는 인근지역 사람과 협의해 보다 효율적인 수산종묘 방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류된 수산종묘는 어자원 증식은 물론, 2~3년 후에는 한탄강 어민들의 소득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홀스타인 품평회

9월 9일 開催

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오는 9월 9일 포천종합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제2회 포천시홀스타인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품되는 홀스타인은 지난해보다 10두가 많은 70두이며 20두는 경매를 위해 출품된다.

홀스타인 품평회를 위해 포천시와 축산관계자들은 지난 6월, 김희동 준비위원장을 위시해 14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구성, 오는 9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앞으로 행사준비위원회 개최, 출품축 대상자선정 및 출품축 관리, 행사 무대시설 설치 및 준비를 완료하게 된다.

이번 품평회는 시비 4천만원, 포천축협 1천만원, 검정회 자부담 1천만원 등 총 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김광준 포천시청 농축산과장은 "이번에 개최되는 품평회에서는 젖소품평회 및 심사, 시상과 더불어 부대행사로 축산기자재 및 축산물 전시회, 우유소비홍보, 육성우 경매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지난해에 이어 큰 호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해 개최된 제1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에서 그랜드챔피언에 등극한 이종면 초계 99호.

포천시 지방세입징수대책보고회

지방세 체납액 징수 13.6%로 경기도내 2위 실적

포천시는 지난달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각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부시장 주재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보고회를 실시했다.

부시장은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실적이 13.6%로서 2004회계연도말 결산분 13.3%를 이미 초과하여 경기도내 2위의 실적을 기록한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상반기 징수목표에 미달하는 세목에 대하여는 강력한 집중독려를 통하여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하였으며 시는 체납액 징수목표를 당초 1천983백만원에서 56.4% 증액된 3천10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수증대 및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각 실과소장은 부서내 세외수입의 체납액 일소를 위한 징수계획 및 특수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금껏 세외수입의 경우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에 그치던 체납처분을 고질·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와 같이 형사고발, 압류재산의 공매, 예금압류 및 추심등을 통하여 혁신적인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없는 세외수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에서는 급격히 발전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게 납세 정보를 모바일(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제공하는 세정 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납세서비스를 실시하고 체납세 발생자체를 사전 예방하는 물론, 납세자의 알권리를 제공하는 등 한 단계 향상된 세무행정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납세편의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과·인삼농가 간담회

포천시는 지난달 28일 포천사과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포천·화현인삼연구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및 인삼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천시는 지난달 28일 포천사과영농조합법인 관계자와 포천·화현인삼연구회 회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과 및 인삼 발전방향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은 사과와 인삼을 포천의 특화된 품목으로 육성해 농업소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이를 농촌체험관광 및 현장학습과 연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선택형맞춤농정과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등을 통해 포천사과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는 개성인삼은 현재의 명성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량품종 개발 및 지주대 등의 생산시설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포천지역은 4계절 뚜렷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삼 생육에 최적지로 손꼽혀 왔으며 사과와 관련해서도 과거에는 경기도 여주와 이전

이 사과재배 가능 한계선이었지만, 지구 온난화에 따라 현재는 한계선이 북한까지 올라와 있다. 특히 큰 일교차로 '포천사과'가 '경북농품' 등 전통적인 사과생산지의 상품보다 당도와 향, 신맛이 조화를 이루고 아삭아삭함이 더해 시중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있는 가운데, 포천시는 경북 영천·상주 못지 않은 사과 주산지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용도별면적에 따라 과세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큰 일교차로 '포천사과'가 '경북농품' 등 전통적인 사과생산지의 상품보다 당도와 향, 신맛이 조화를 이루고 아삭아삭함이 더해 시중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있는 가운데, 포천시는 경북 영천·상주 못지 않은 사과 주산지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지혁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산 소재지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동산임대업의 과세표준 : 임대료 + 간주임대료

-임대료는 월세에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받으면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수도료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보증금 X 임대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X 3.6%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산업안전사고 예방

스텐레스 지지대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 중 감전사고

인천시 소재 OO조명 작업장 내에서 가로등에 사용되는 스텐레스 재질의 지지대에 볼트 구멍을 뚫기 위해 핸드드릴기로 천공작업을 하던 중 전선피복이 손상되어 누전으로 감전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 원인으로의 첫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대지전압

재해발생 원인으로의 첫째,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미설치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는 휴대용 핸드드릴기와 같은 전동기계기구는 전원측에 감전방지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했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

재해발생상황도

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붙은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하여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 실시했다.

이와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로 대지전압 150V를 초과하

는 휴대용 핸드드릴기와 같은 전동기계기구는 전원측에 감전방지를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정격감도전류 30mA)

둘째, 금속제 외함 접지로 습윤한 옥외작업장에서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접지극이 붙은 콘센트 및 플러그를 사용하여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이중절연구조(II)의 전기기구 사용하는 것으로 핸드드릴기와 같은 휴대용 전동기계기구는 외함에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는 이중절연구조의 핸드드릴기를 사용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